

최근 가장 유망한 산업 분야를 꼽으라면 단연 환경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경우, 환경산업은 환경오염 유발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사후처리산업'으로 인식되었고, 환경정책은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정책으로 '경제성장과 상충되는 개념'으로 인식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기후 변화 대응 및 수자원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환경산업은 친환경 제품생산, 신·재생에너지 개발, IT/BT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사업 등 그 분야를 점차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환경부도 환경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목표로 하여, 유망 환경기술에 대한 R&D 투자 확대, 환경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환경산업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수출지원 상담센터 운영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 환경산업 1,000조원 시대, 녹색강국으로 도약하자

송재용 |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서울대 행정대학원('89), 인디애나대 대학원('93, 환경정책학석사)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녹색환경정책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수질환경국장, 홍보관리관, 원주지방환경청장, 혁신인사담당관 등 역임

tel. 02-2110-6504 | j.song.nature@gmail.com



## 성장하는 환경산업

환경산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세계 환경산업 시장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약 8천억\$ 수준이며, 매년 3.5%씩 성장하여 2017년에는 1조\$ 이상의 거대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EBI, '09. 10월)된다. 특히 환경관련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개도국 환경시장은 연평균 8%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또한, A.T. Kearney 보고서에 따르면, '17년도 분야별 산업규모는 BT(3,090억 불)<반도체(4,800억 불)> ET(1조 1천억 불) 순으로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더욱이, 환경산업의 많은 분야가 시장 형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무궁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국내 환경시장은 최근 5년간 15% 이상의 성장추세를 보여 왔으나, 국내 환경 인프라 기반 구축이 완성단계에 돌입함에 따라 향후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환경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개도국 환경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본 칼럼에서는 환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기업의 환경시장 진출/금융 지원 부문 각각의 추진현황을 살펴본 후 향후 추진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

먼저 정부 부문에서는 환경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위하여 2011년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환경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범부처 차원의 환경산업 육성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동 활성화 방안에서 '10년 3.3조원 규모의 환경산업 수출액을 2017년 15조원까지 확대하고, 10개 국내 환경기업을 세대 100대 환경기업으로 육성하여 15만 개의 환경관련 추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목표 하에 환경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코이노베이션 사업('11 ~ '20, 2.1조원 투입)을 추진하여 핵심기술의 세계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신흥 환경시장 개척과 국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 담당 고위급 인사 초청사업(Global Green Business Partnership)을 수행하며, 환경 협력사업 발굴과 사업 수주 협의를 위하여 권역별 민·관 합동 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고 있다. 더불어, 국내 유망 환경기술의 해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환경기술 국제공동현지화 사업·기술이전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출지원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계약, 법률, 세무 등의 분야에서 환경기업 해외진출 애로사항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부문에서도 국내 30대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90%이상이 환경사업을 추진하여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덧붙여 GS건설은 작년 11월 세계

10위권 해수담수화 업체인 Inima를 인수하여 중동·중남미 지역 환경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등 환경산업 분야에서 Total Solution 기업으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했으며, 쿠웨이트 지역 토양오염 복원사업을 올해 2월 단독으로 수주하여 38만m<sup>2</sup> 면적의 오염토양 복원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환경산업 진출을 위한 전략적 인수·합병과 기업 계열사의 구조 개편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환경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사업분야를 확장하여 지능형 수자원관리와 수질자동측정 시스템 등 IT기술을 환경산업에 적용하여 신규 시장을 개척을 모색하고 있다.

많은 환경기업의 해외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자금 지원문제와 관련하여 녹색뉴딜펀드와 국책 공공 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확대, 공적원조개발자금(ODA) 자금 활용 등 사업자금 문제해결을 위하여 정책적 자금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연간 1,150억원 규모의 정책육성자금을 기업에 지원하여 환경부문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향후 노력해야 할 중점 과제

21세기의 블루오션 분야인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책적 지원, 기업의 노력, 금융권의 투자 활성화가 조화를 이루어 환경산업이 미래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이다. 위에서 서술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환경산업 후발국이라는 점은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과의 비교 우위 분석에서 약점으로 도출되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추진 과제는 녹색환경기술 개발 및 산업육성 기반 마련, 국가간 네트워크 강화, 환경 프로젝트 금융지원 확대와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활용한 환경사업 발굴, 기업 차원에서의 혁신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과제는 환경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환경기술 연구개발 인프라를 제공하고, 개발된 기술의 실증화(Test-Bed)를 위한 공간을 환경기업

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산업 복합단지를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국가 간 환경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해외 진출 시장다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해외 환경시장 정보를 조사하여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해외 환경관련 인사 초청 사업 규모 확대를 통하여 국제 환경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단기연수 위주의 해외 환경인력 초청연수 사업으로는 국제연수 사업의 내실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해외 인력 장기 연수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 과제는 여전히 부족한 국내 금융기관의 환경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와 정책 지원 자금을 확충하고, 공적개발원조 자금을 활용한 사업 발굴을 확대하는 것이다.** 민간합동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해외진출 환경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지원 및 사업화 자금 지원을 늘려가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적개발원조 자금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발맞추어, 국제개발은행(MDB) 및 국제기구와의 환경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국내 환경기업이 해외 환경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환경기업도 글로벌 환경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조직개편, 투자확대 등 조직·예산적 측면에서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할 것이고, 기술개발과 마케팅 능력 배양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산업 육성과 해외진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는 비단 환경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POST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맞아 지식경제부 등 경제부처들은 신흥 개발국가들과 경제협력 채널을 통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 환경기업도 글로벌 환경시장에서 그 경쟁력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